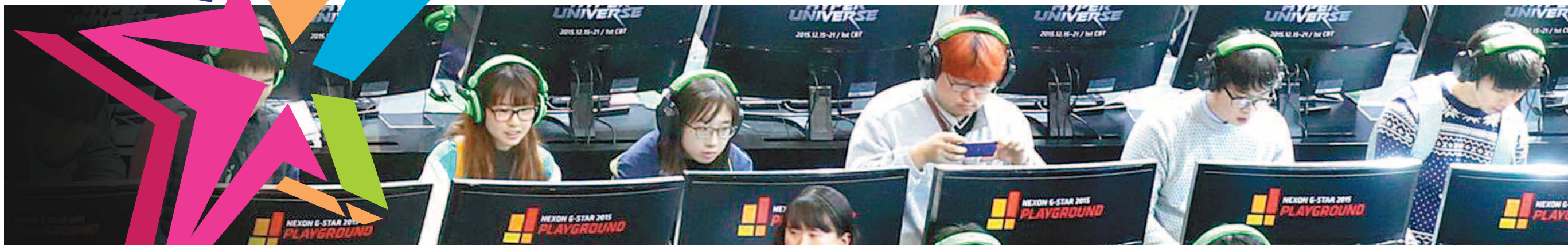


게임, 그 이상의 세계...부산이 뜨거워진다!



게임전시회 지스타가 '게임,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라'는 의미를 담은 'Play To The Next Step'을 슬로건으로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다. 지난해 지스타에서 신작 게임을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들.

G-STAR 2016

오늘 부산 벡스코서 개막
역대 규모로 4일간 향연

게이머들의 연중 최대 축제 '지스타'가 17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 전시장을 달군다. 행사 슬로건은 '게임,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라'는 의미를 담은 'Play To The Next Step'이다. 가상현실(VR)과 모바일 등 더욱 향상된 진보적 게임 환경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역대 최대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지스타엔 넥슨과 넷마블게임즈, 웹젠 등 주요 게임기업들이 참가해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선보인다. 업계 이슈인 VR 콘텐츠도 대거 전시한다. 그 밖에 야와 전시장 참여형 이벤트와 e스포츠 연계행사도 펼쳐진다. 아울러 컨퍼런스와 투자마켓, 채용박람회도 열린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다크어벤저3

■ 넥슨, 상상불허의 세계로 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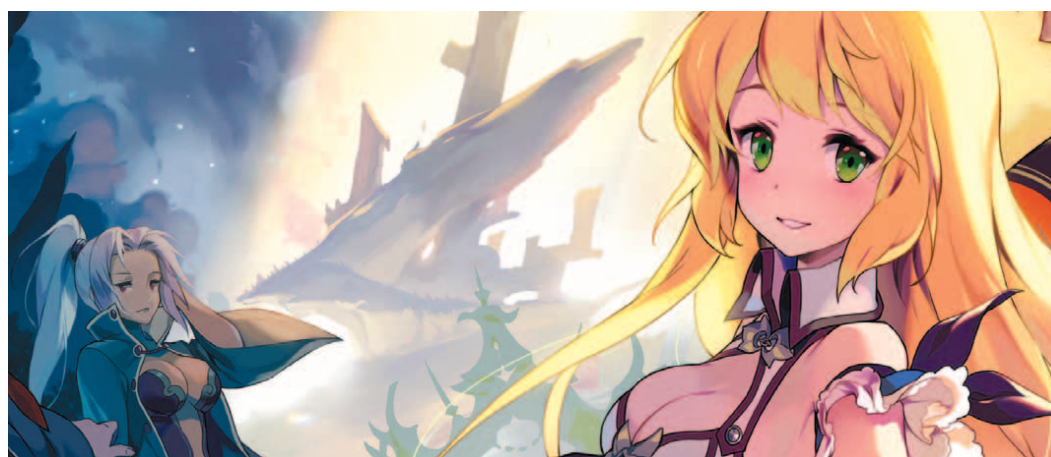
넥슨은 이번 지스타에서 무려 400부스에 역대 최대인 35종의 출품작을 쏟아낸다. 19종의 게임은 시연 출품으로, 16종의 게임은 영상 출품으로 준비했다. 테마는 창립 초기 슬로건이면서 '현실을 넘어 또 다른 즐거움의 세계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은 'Life Beyond'다.

150부스 규모의 PC온라인게임존에선 총 6종을 시연 버전으로 선보인다. '하이퍼유니버스'와 '니드포스피드 엣지'는 물론 샌텐트 산하 스

400부스·35종 출품... '다크어벤저3' 등 19종 화끈한 시연 서비스

튜디오가 개발 중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천애명월도', 바르손이엔에이 산하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MMORPG '아스텔리아', 보스키 프로덕션이 개발 중인 일인칭슈팅(FPS) 게임 '로브레이커즈', 명소프트가 개발 중인 MMORPG '페리아 연대기' 등을 시연 버전으로 최초 공개한다.

모바일게임존 역시 150부스로 마련된다. 13종을 시연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블리엔 게임즈의 '다크어벤저3'를 비롯해 레고 시리즈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RPG '레고



페리아 연대기

퀘스트엔컬렉트', IMC게임즈의 MMORPG '트리 오브 세이비어: 모바일 리메이크', 라온엔터테인먼트의 액션 러닝 게임 '테일즈런너 리볼트', 코에이의 '진삼국무쌍7'을 원작으로 한 '진삼국무쌍: 언리쉬드', 인서트코인즈의 수집형 턴제 RPG '연노는 히어로즈', 캐주얼 경영 시뮬레이션 소셜네트워크게임(SNG) '판타지타운' 등 7종의 게임이 첫 선을 보인다. 또 네오플에서 개발 중인 '이블팩토리', '에프터 디 엔드'와 데브캣 스튜디오의 고전 리메이크 퍼즐액션게임 '로드 러너 원'도 시연 버전으로 유저들을 맞는다.

중앙 통로에 위치한 미디어홀과 대형 LED스크린을 통해 16종의 영상도 공개한다. 특히 '토탈클래시'와 '프로젝트 Wifun', 'AXB', '프로젝트 RED', '프로젝트 블래스트', '프로젝트 DH', '테일즈위버M' 등 외부에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신작 게임이 영상을 통해 최초 공개된다. 자체 개발 중인 PC온라인게임 '프로젝트 메타'도 부스에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100부스로 마련한 '슈퍼 스테이지'에서는 다양한 신작 게임 쇼케이스와 대전 이벤트, e스포츠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김명근 기자

'리니지2 레볼루션' 외 미공개 2종 개봉박두

■ 넷마블게임즈, 이보다 짜릿할 수 없다

netmarble
Games

넷마블게임즈는 이번 지스타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과 함께 2종의 미공개 신작을 공개한다. 슬로건은 'Enjoy Mobile G-Star:2017 netmarble mobile'이다. 현장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모바일게임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이용자들에게도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모바일로 참여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약 250여대의 대규모 이

용자 시연대를 통해 모바일게임 체험에 최적화된 부스를 구성하는 한편 대형 LED 스크린과 오픈형 무대를 통해 관람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총 100부스 규모의 부스에서는 리니지2 레볼루션을 필두로 '펜타스톰'(가칭)과 스타워즈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신작 등 3종의 모바일게임을 선보인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PC온라인게임 '리니지2' IP를 이용한 초대형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시연 버전과 신규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한다. 현장에서 최대 60명의 이용자가 벌이는 대규모 전투 '요새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 최초로 공개하는 펜타스톰과 스타워즈 IP를 활용한 신작 또한 직접 플레이 해볼 수 있는 시연 버전과 플레이 영상을 통해 이용자와 첫 만남을 가진다. 펜타스톰은 개성 강한 영웅들로 실시간 5대5 대전을 즐기는 MOBA(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장르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조작으로 빠르고 전략적인 승부를 펼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을 거느린 스타워즈 IP를 활용한 모바일 신작의 경우 이용자가 반란군 또는 은하제국을 선택해 상대와 전투하는 실시간 대전 장



리니지2 레볼루션

르다. 루크 스카이워커와 다스 베이더 등 주요 인기 캐릭터가 총출동한다.

넷마블은 이번 지스타 현장에서 관람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했

다. 방송 부스를 마련해 각 게임 별로 실시간 대전 중계를 진행하는 한편 현장 즉석 이벤트와 모바일 이벤트, 쿠폰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벌인다.

김명근 기자

대형 3면 파노라마 영상관서 즐기는 '뮤 레전드'

■ 웹젠, 맘껏 즐겨라



웹젠은 이번 지스타에 100부스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하고 '뮤 레전드'와 '아제라: 아이언하트' 등을 출품한다. 콘셉트는 '체험형 전시장'이다. 관람객들은 내년 1분기부터 정식서비스하는 PC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뮤 레전드와 올해 내 출시되는 모바일 MMORPG 아제라: 아이언하트를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다. 또 게임캐릭터를 이용해 제작한 2미터 규모의 대형 피규어와 3D파노라마 영상 등의 전시물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에 출품하는 뮤 레전드는 핵엔슬레쉬 사냥을 전면에 내세운 PC MMORPG로 인기게임 '뮤 온라인'의 정식 후속작이다.

아제라: 아이언하트는 중세 SF 판타지풍 모바일 MMORPG. 고품질 그래픽과 몰입감있는 시네마틱 연출 등이 강점이다.

먼저 뮤 레전드 전시공간에선 영화관을 옮겨놓은 듯한 가로 12미터 규모의 대형 3면 파노라마 영상관에서 현장에서만 공개되는 시네마틱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영상관에선 그래픽카드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도 열린다. 시연 공간에선 2차례의 비공개테스트를 거친 뮤 레전드를 즐길 수 있다. '블러드캐슬'과 같은 뮤 시리즈의 인기 던전 뿐 아니라 뮤 레전드의 주요 콘텐츠로 꼽히는 '에픽던전'도 경험해 볼 수 있다.

아제라: 아이언하트의 전시공간에선 '트릭아트' 조형물과 대형 '마감기' 피규어를 만날 수 있다. 시연 공간에선 주요 연출영상과 마감기를 사용해 3D모바일게임의 시각적 재미를 극대화한 체험버전을 직접 즐겨볼 수 있다. 개인간대전(PvP)에 바로 참가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따로 마련했다. 두 게임의 주요 캐릭터 코스프레도 준비했다. 인기 레이싱 모델들이 코스프레에 참여해 게임 캐릭터를 눈앞에서 보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웹젠의 대표 지적재산권(IP)인 뮤 시리즈의 로고송을 이용한 공연무대 역시 참여이벤트로 준비했다. 19일 오후 진행될 '웹젠가왕(가칭)'은 일반인과 걸그룹 멤버가 로고송을 비롯한 여러 노래를 부르며 관람객들이 가면 뒤에 숨겨진 연예인을 추리해 찾아내는 이벤트다. 블랙박스 등의 경품도 주어진다.

김명근 기자



웹젠 '뮤 레전드'▶